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펀드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도 받고...

Editor 이종근 미래에셋투자자산연구소 연구원

■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으로 청년들의 자산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로 젊은 층의 자산 형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의 고민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된 금융상품이 있다. 바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청년소장펀드)다. 청년 소장펀드는 가입 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중 일부를 소득 공제해 주는 펀드 상품으로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에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소장펀드의 가입 조건과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다른 세제혜택 상품과 비교했을 때 청년소장펀드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소득 조건 갖춘 청년은 총 3600만원 납입 가능

청년소장펀드는 만 19~34세(6년 한도로 병역복무기간 배

제)인 동시에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하다. 만약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이는 매수 신청일이 아닌 펀드 결제일 기준이다. 따라서 매수 신청부터 결제일까지 소요기간은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다. 최장 5년 동안 최대 6년 납입할 수 있어 최대 총 3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여러 청년소장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연간 납입 한도는 합산 금액으로 계산된다.

청년소장펀드는 연간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예컨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600만원의 40%)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이 경우 그해 연말정산 시 약 15만8000원(240만원×6.6%) 또는 39만6000원(240만원×

16.5%)을 기납부 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 연소득 1400만원 이하 구간일 경우 주민세 포함 종합소득세 6.6%, 1400만~5000만원 구간일 경우 16.5%의 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소득공제는 납입 1년 차부터 받을 수 있지만 최소 3년 이상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개요	
구분	내용
가입조건(나이)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배제)
가입조건(소득)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가입 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펀드 결제일 기준)
소득공제 혜택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소득공제 배제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
원금 보장 및 예금자 보호 여부	해당 없음

청년소장펀드와 IRP·연금저축·ISA 비교

	세제혜택	의무가입기간	투자 가능 상품
청년소장펀드	- 연 납입 한도 600만원 -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최대 5년	3년	청년소장펀드
ISA	- 이자·배당소득 중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초과분 9.9% 분리과세	3년(납입원금에 한해 중도 인출 가능)	예·적금, RP, 공모 펀드, 국내성장주식/ ETF/리츠, K-OTC 거래 비상장 주식(중소·중견기업),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
IRP	- 연 납입액의 16.5%(또는 13.2%) 세액공제(900만원 한도) - 연금수령 시 이자·배당소득 저율 과세	5년, 55세 이후 연금수령	예·적금, 원리금보장 ELB, 이율보증보험, 공모펀드, 국내성장ETF/리츠
연금저축펀드	- 연 납입액의 16.5%(또는 13.2%) 세액공제(600만원 한도) - 연금수령 시 이자·배당소득 저율 과세	5년, 55세 이후 연금수령	공모펀드, 국내성장ETF/리츠

은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그 전에 환매(일부 매도 불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 내에서 납입액의 6.6%만큼을 과세한다. 가입기간 중 총 급여액이 8000만원(또는 종합소득 6700만원)을 초과하면 그해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절세상품들과의 세제혜택 및 요건 비교

IRP와 연금저축은 저축금액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청년소장펀드와 유사하다. 다만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납입액의 16.5%(또는 13.2%)를 환급해 주며 세액공제 한도는 IRP와 연금저축 합쳐 900만원이다. 또한 펀드뿐 아니라 국내 상장 ETF, 리츠, 보험 등 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또 발생한 수익에 대해 즉시 과세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 저율 과세한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축적된 자금을 55세 이상의 나이에 10년 이상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ISA 역시 대표적인 절세 상품 중 하나다. 이 상품은 납입금에 대한 공제혜택이 아니라,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이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ISA는 IRP와 연금저축보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청년소장펀드와 같지만 납입원금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IRP와 연금저축과 비교했을 때 청년소장펀드는 의무가입

기간이 비교적 짧아서 단기간 목돈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따라서 3년 정도의 투자기간을 예상하고 있다면 ISA 비과세 혜택과 청년소장펀드의 소득공제 혜택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지 비교해 보고 선택하면 된다.

청년소장펀드 가입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어떤 펀드에 가입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청년소장펀드는 기본적으로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 또는 국내 상장 주식형 펀드를 편입해야 한다. 나머지는 펀드 전략에 따라 다양한 자산을 편입할 수 있다.

투자성향이 공격적이라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 채권에도 분산투자하는 혼합형 펀드가 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별 분산투자가 되어 있는 펀드를 찾는다면 해외 주식에도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국가에 투자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본인 투자성향에 따라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고를 수 있다. 관심 있는 특정 테마와 관련된 기업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성과를 점검하고자 한다면, 선택하고자 하는 청년소장펀드와 유사한 혹은 완전히 동일한 운용전략을 따르는 기존 일반 펀드를 참고해볼 수 있다. 펀드 간의 운용성과뿐 아니라, 운용사 자체의 역량을 따져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과거 수익률이 미래에도 보장된다는 법은 없으니 참고 정도 로만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수 및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도 비교해 봐야 한다. **M**